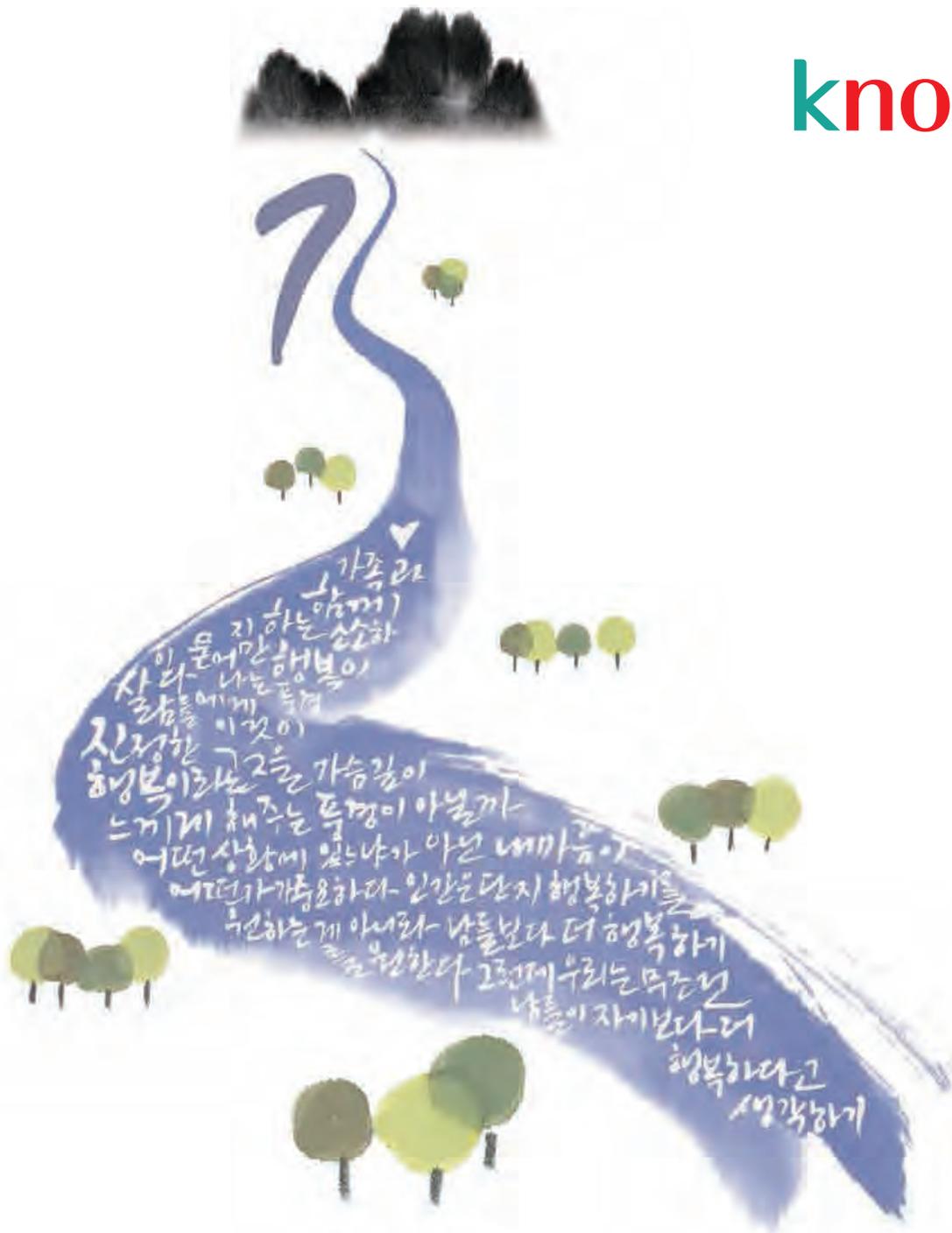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2

FEBRUARY 2015
vol.02
MONTHLY MAGAZINE

사랑은
행복하기로
마음은
머리는
행복하기
이런 심오한
이런
권력의 말을
이상현 쓰다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What
is
true
happiness?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아닌
'내 마음이
어떤가'

“인간은 단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남들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극작가인 세네카가 한 말이다.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꿰뚫어본 말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복의 크기'를 늘 비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보이고 별 고민도 없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라는 생각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평생 감내해야 할 고통을 일정하게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고통이 오면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의 총량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보자.

젊었을 때 고통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 편한 길만 찾았다면 노년에 더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것이다.

지금 바닥을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바닥에서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고통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는 속담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행복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떤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최근 일본에서 실시한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채롭다. 20대 남성의 65.9%, 20대 여성의 75.2%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젊은이가 1973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이 조사결과는 일본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명 ‘88만원 세대’, ‘워킹 푸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 젊은이들은 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 일본 지식인들은 “일본 젊은이들은 비록 지금은 불행하지만 장차 내일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행복한 젊은이들’은 지난해부터 일본에서 유행하는 ‘사토리 세대(さとり世代)’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사토리’는 도를 깨쳤다는 의미인 ‘득도(得道)’의 일본식 발음이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쓸쓸한 결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비슷한 기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손녀가 만든 케이크 상자입니다. 그 위에 예쁘게 장식한다고 피아노 학원 달란트 시장에서 샀다는 꿈틀이를 올려놓았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딸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선물을 하겠다며 손녀가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만든 케이크는 좀 찌그러져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든 케이크를 보니 그 정성이 너무 예쁘고 고맙네요. 주방에서 딸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는데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 해서 한우고기 많이 사드릴게요’ 별안간 할아버지의 웃음이 터집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손녀가 정말 기특합니다. 내년 초등학교가 되는 손녀에게 줄 입학 선물을 서둘러 준비해야겠어요. 가족과 함께 하는 소소한 일상, 이런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네이버 블로그 가람(lkae3)님의 글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소소하지만 행복이 묻어나는 풍경이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는 풍경이다.

직장인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한국 직장인들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55점이라고 한다.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이 다소 만족스럽고(53점), 가치가 있다(65점)고 느끼지만, 그리 즐겁지는 않다(48점)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더 행복한 직장인은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도 상위 20%의 직장인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행복한 직장인은 직장에서 즐거움을 찾는 ‘긍정감성(Positive Affect)’을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행복한 직장인의 긍정감성은 78점으로 불행한 직장인(35점)과 차이가 많았다. 둘째, 행복을 느끼는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행복한 직장인의 업무 의미감은 82점, 불행한 직장인은 54점이었다. 셋째, 행복한 직장인은 인간관계의 폭도 넓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도가 약 7배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나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의사이자 코미디언, 베스트셀러 저자인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은 그의 책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에서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질문한다. “만약 당신이 행복이라면 당신은 가까이 당신 자신을 찾아가시겠습니까?” 행복을 가로막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2월호 vol.02
MONTHLY MAGAZINE, FEBRUARY 2015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윤성근 이상한나라의현책방 대표

흔히들 행복은 소유하기엔 벅찬 '파랑새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 어려운 방법,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그 행복이란 걸 가질 수 있다고 지레 겁을 먹는다. 당신도 이런 부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윤성근 이상한나라의현책방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28

연금 포커스 | 세계혜택 상품을 활용한 저금리 시대 미래설계를 위한 투자전략

미래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지혜로운 선택은 어떨까. 질세상품이 미래설계를 위한 투자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등 4가지 유형의 질세상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자.



38

부동산이슈 | 부동산 3법 개정, 시장회복 이끌까?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축소, 재건축 조합원 복수 분양 허용이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42

지구인 이야기 | 3층 연금시스템이 국민 노후 '탄탄 보장'

최근 스위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보장책으로 자리하고 있는 스위스의 3층 연금구조가 세계 최고 연금시스템 중의 하나로 꼽혔다.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든든한 노후보장시스템은 '살고 싶은 스위스'의 매력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진정한 나'를 만나면 행복이 보인다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기초연금 수급현황 및 활용

행복미래설계



- 14 **H씨의 행복설계**
재취업, 실물자산 재분배로 행복.한 노후설계
- 18 **지식 플라자**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노후를 대비한 의료비 보장, 질병보험
- 22 **Do! Dream**
세 할머니들의 인생만란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 24 **Anti aging**
'반짝반짝' 아이안티에이징 프로젝트
- 26 **Alone, together**
소소한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동네 벼룩시장'

연금이슈포커스



- 28 **연금 포커스**
세계혜택 상품을 활용한 저금리 시대 미래설계를 위한 투자전략

경제 TREND



- 32 **경제 이슈**
중국의 구조개혁과 경기 연착륙
- 35 **시장이슈**
신용시장 불안 2.0? 이제는 기업부채에 유의해야
- 38 **부동산이슈**
부동산 3법 개정, 시장회복 이끌까?

GLOBAL



- 42 **지구인 이야기**
3층 연금시스템이 국민 노후 '탄탄 보장'

FUTURE



- 44 **은퇴, 버킷리스트**
인생 황혼기, '독서광' 되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2월호 vol.02 (통권 2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발행일 2015년 2월 5일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승희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원, 하나은행 | 김한성 팀장, 최호재 팀장, KEB | 김홍균 수석전문역, 조선영 차장, 하나대투증권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진정한 나’를 만나면 행복이 보인다

흔히들 행복은 소유하기엔 벅찬 ‘파랑새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 어려운 방법,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그 행복이란 걸 가질 수 있다고 지레 겁을 먹는다. 당신도 이런 부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평화로운 이 사람, 윤성근 이상한나라의헌책방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행복의 자그마한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나’에게 한 발짝 다가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말이다.

‘인간은 의미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의미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이상한나라의헌책방 대표 윤성근 작가. 그의 행복에 대한 답론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로 시작됐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답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생 찾아도 찾기 어려운 ‘행복의 정의’는 앞으로도 감히 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고 했다. 요즘 사람답지 않게 윤 작가는 삶의 행복에 대해 참 진지하다. 그러나 그의 진중한 답변에서 읽을 수 있었던 건 그도 분명 행복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금의 삶이 참 좋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그만의 방식이 궁금했다.

“좋아하는 책 속에 둘러싸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참 좋습니다.”

행복을 말하기에 앞서 우린 그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로 했다. 바로 그의 경건한(?) 놀이터, 헌책방에 대한 얘기다. 어릴 때부터 ‘활자중독증’ 환자로 불릴 만큼 독서광이었던 그는 2002년 6월 종로서적 폐업에 충격을 받았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없어진 것 같은 상실감이었다’고 표현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10년 동안 다니던 컴퓨터 회사에 과감히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직접 헌책방을 열기로 결심하고, 출판사, 큰 헌책방을 견습한 뒤 2007년에 서울 응암동 뒷골목 지하에 이상한나라의헌책방을 열었다.

“출판사나 일반 서점은 제가 좋아하는 책만 팔 수 없죠. 헌책방은 좋아하는 책만 다룰 수 있고, 또 어떤 것이든 빈티지를 좋아하는 저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밤바람에 소나무가 삐걱이고
열은 구름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갈 때, 밖으로 나가라, 아이야,
밖으로 나가 찾아라
너의 영혼을 - 영원한 나를.

네 발 아래 살랑이는 모든 풀들과
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모든 빛나는 별들이 침묵하며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므로 눈을
감고 만나라
네 안에서 - 영원한 내 안에서.

그래, 아이야, 세상으로 나아가라
; 천천히
조용히 걸어가라,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그러면 이윽고 너의
영혼은, 우주를 깨달을 것이다
스스로를 - 영원한 나를,

제인 구달의 「오래된 지혜」



윤 작가는 좋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책방에 진열된 모든 책들은 그가 직접 읽은 것들이다. “현책방을 찾는 손님들은 책방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손님들이 매우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주인장이 좋아하는 책만 다루는 현책방. 또 주인장이 읽은 책만 파는 현책방. 바로 서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현책방 ‘이상한나라의현책방’에서만 가능한 얘기다.

책방에는 영미, 일본소설을 싫어하는 주인장의 취향에 따라 프랑스, 러시아, 동구권 소설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다. 덕분에 비슷한 성향의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심야책방’이 열린다. 이날 저녁에는 일찍 문을 닫지 않고 책방에서 손님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다. 영화상영, 바리스타에서 배우는 모카포트사용법, 저자 강연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함께 한다. 단골손님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다. 시장 출마 이전부터 자주 찾았던 박 시장은 자신의 시장 집무실 서가 구성을 그에게 맡기기도 했을 정도다.

자신과 대화하는 여유가 필요한 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실행해 옮기는 것, 어쩌면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인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면의 소리에 집중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하죠. 현대인들은 인터넷, 트위터 등 타인의 소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남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이뤄질 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할 때 즐거운지 찾을 수 있어요.” 하루에 단 얼마동안이라도 외부 소리를 차단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여유를 찾는 게 현대인들에겐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윤 작가는 평소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 미디어와의 거리를 둔다. 영화, TV도 보지 않는다. 다만 뉴스가 필요할 때는 주간지, 월간지 정도로 정보를 선별해 습득한다고. 얼핏 보면 윤 작가를 미디어를 멀리하고 세상과 격리된 채 홀로 책만 읽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또 다른 대화의 채널, 독서라는 것이 있었다. 성급하게 자의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읽고 있는 작품, 저자, 또 다른 작품과 소통하고, 나아가 책방을 방문하는 손님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한편 윤 작가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팽배하게 된 것도 어쩌면 미디어의 검증되지 않은 실시간 정보들 때문이라며, 정보에 모두가 매몰되어 세상을 넓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불안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듯, 정보도 조절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고뇌에서 삶의 의미 깨달아

자신만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윤 작가. 자기 내면에 대한 치열한 고뇌 덕분인지 그는 ‘죽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삶과 죽음은 상호의존적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행복한 삶의 조건은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 죽음과 정면으로 직면하는 괴롭고 힘든 경험을 통해 오히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그의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가 삶을 좀 더 의미있게 살도록 일깨워준 좋은 지침이 된 것 같다. 이것이 즐거움에 대한 ‘주저없는 결단’을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면의 소리에 집중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하죠. 현대인들은 인터넷, 트위터 등 타인의 소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남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이뤄질 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할 때 즐거운지 찾을 수 있어요.”

느리게 책 읽는 행위가 행복의 도구

“책을 읽는 행위가 행복의 도구입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느리게 읽는 행위는 자연의 속도에 순응하는 것이죠. 바로 내 몸이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텍스트를 읽어가는 것은 작품의 리듬과 의미, 저자의 의도, 가치관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잠들기 전 침대에 30분, 1시간 누워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책읽기의 즐거움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은 텍스트를 인지하고, 읽고, 기억하고, 갈무리하는 패턴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현대인들은 실재없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접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무엇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선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잃어버린 채 한 가지 문제를 곰곰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여유는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윤 작가의 ‘느리게 책읽기’는 행복에 이르는 좋은 대안인 듯하다.

위인의 일생이 담긴 평전에서 배우는 지혜

인터뷰 도중 현책방 구석구석이 궁금해졌다.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책방 분위기는 편안히 책에 집중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인장 추천도서 등 현책방스럽지 않은 정갈한 도서진열은 주인장의 책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문득 그는 어떤 책을 읽는지,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궁금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평전을 주로 읽어요. 인물의 일대기를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지혜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 간디, 여성 평전으로는 여성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 동물학자 제인 구달, 동화작가 타샤 튜더 등의 인물을 추천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듯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 취향도 달라 책을 추천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그는 그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읽기뿐 아니라 책을 쓰는 작가로의 삶도 여전히 이어갈 예정이다. 벌써 ‘이상한나라의현책방’, ‘심야책방’, ‘침대 밑의 책’, ‘현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등 5권이나 책을 낸 작가이다. 최근 펴낸 ‘책이 좀 많습시다’는 인기가 좋아 초판은 이미 소진했고, 재인쇄 중에 있다. 또 일본 현책방스토리에 대한 다음 작품도 준비 중이다. 1년에 책 1권씩 내는 것이 목표란다. 이상한나라의현책방은 이 모습 그대로 책방을 간직해 나가되, 지하를 벗어나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살짝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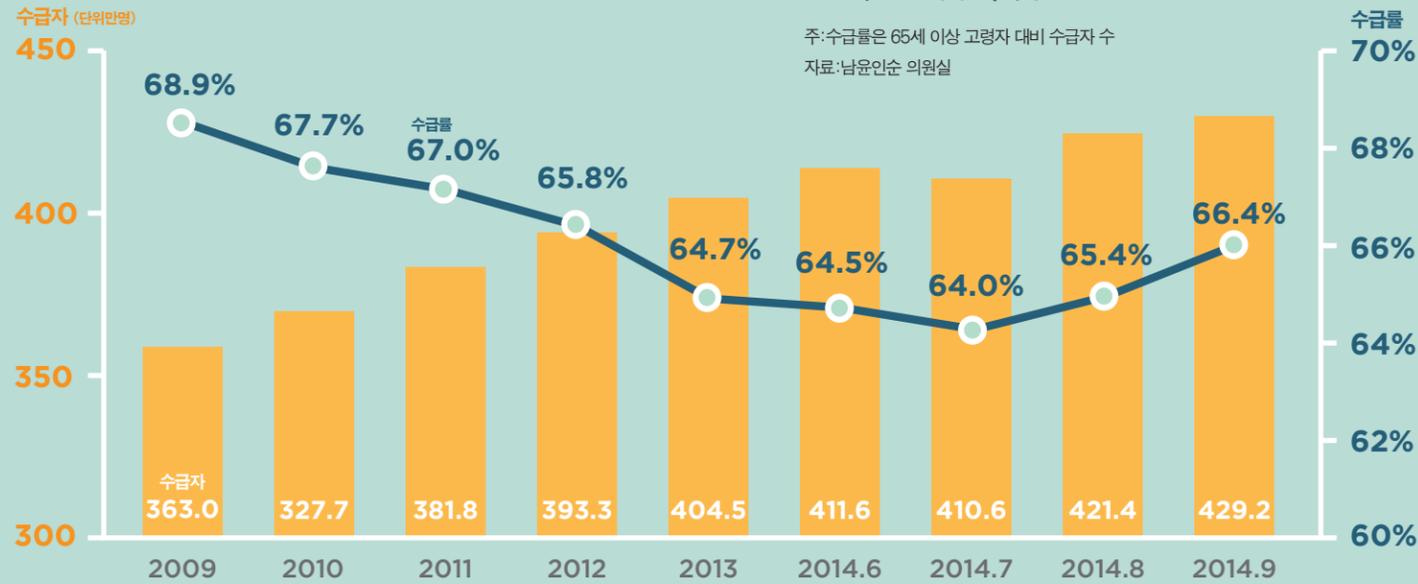
앞으로도 그는 여전히 늦은 밤, 새벽에 책 읽는 것을 즐길 것이며 고집스럽고 조금은 엉뚱한 책방에서 책과 그리고 책방을 찾는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며 행복을 향한 느린 걸음을 이어갈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현황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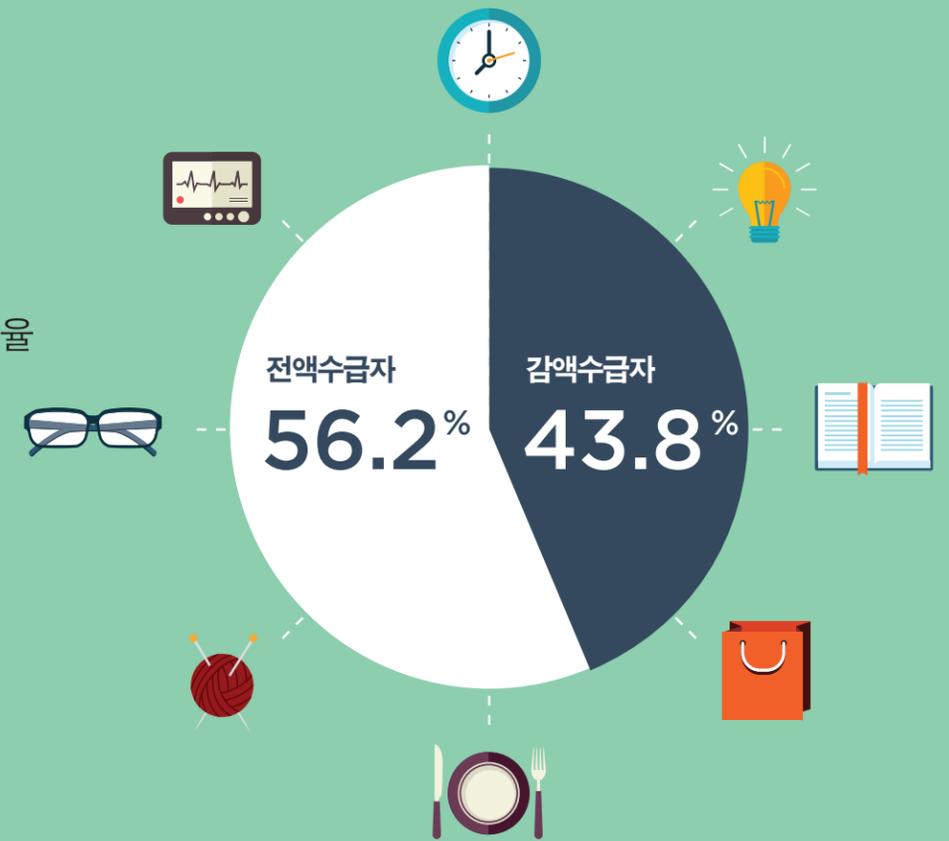
I. 기초연금 수급

주:수급률은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수급자 수
자료:남윤인순 의원실



II. 2014년 9월 기준 20만원 전액 수급자 비율

자료:연함뉴스



III. 기초연금 지출분야별 비중

자료:보건복지부

보건의료비 **44.2%**

식비 **30.2%**

주거관련비 **15.8%**

IV. 기초연금 활용에 따른 생활변화

자료:보건복지부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 감소 **55.0%**

내가 원하는것을 거리낌 없이 구입가능 **5.6%**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때 보다 당당 **6.6%**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25.6%**

생활 등에 도움 **3.0%**

재취업, 실물자산 재분배로 행복한 노후설계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H씨(43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등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55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어, 12년 후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안한 H씨를 안심시켜 줄 노후 설계 묘안은 무엇일까.



많은 순자산을 보유한 편이나 이른 나이 은퇴 예상으로 불안감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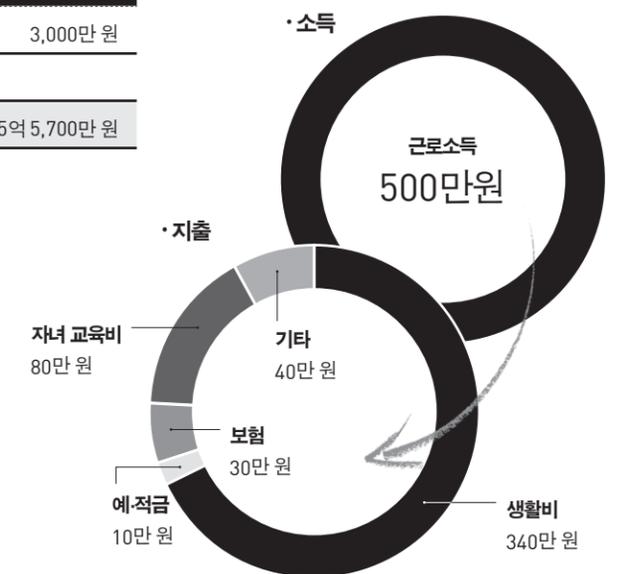
H씨(43세)는 금융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생과 유치원생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H씨는 55세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어, 당장 12년 뒤에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앞으로 지출하게 될 두 자녀의 학자금, 결혼비용 등 큼지막한 용처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노후 설계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만 커질 따름이다.

현재 H씨의 자산·부채현황을 보면 자산은 아파트 5억 4,000만 원, 펀드 4,500만 원, 예적금 2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금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부채로는 본인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3,000만 원이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월평균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반면 지출은 생활비 340만 원, 예·적금 10만 원, 보험 납입액 30만 원, 자녀 교육비 80만 원, 대출 원리금상환 등에 지출되는 기타비용 40만 원으로 총 지출 대비 저축 금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5억 4,000만 원
펀드	4,500만 원
예·적금	200만 원
· 부채	
마이너스대출	3,000만 원
순자산	5억 5,700만 원



노후 생활비로 월 270만 원 원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미비

H씨는 55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월 12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전환 부분을 포함한 개인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해 64세까지 월 70만 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따라서 은퇴 직후인 55세부터 64세까지 연금으로 조달 가능한 생활비는 월 70만 원, 65세 이후에는 월 120만 원이 예상된다.

그런데 H씨는 현재의 생활을 감안할 경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 후 현재 기준 월 27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등을 감안할 때 은퇴시점인 55세에 이르면 월 363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의 노후설계에서는 55세부터 64세까지 매월 293만 원이 부족하고, 65세 이후로는 매월 243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은퇴를 할 무렵 대학에 들어갈 두 자녀의 학자금과 미래 결혼비용으로 추산되는 2억5,000만 원(학자금 1억원, 결혼비용 1억5,000만 원)의 추가 지출을 생각하면 현재 노후 준비 상황은 크게 미비하다.

향후 H씨는 은퇴 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월 243~293만 원(55~64세 293만 원, 65세 이후 243만 원)의 생활비용에 대한 6억 3,858만 원, 두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비용인 2억 5,000만 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 준비를 위해 은퇴 후

재취업과 실물자산의 재분배 요구

H씨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 시점인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인 64세까지 재취업으로 월부족자금의 일부를 채우고, 나머지 부족분은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를 통한 운용과 주택연금 활용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55세~64세 시기의 경우 70만 원의 개인연금만 받게 되고 국민연금은 받을 수 없는 소득 절벽 구간이다. 따라서 현재 받는 임금보다 다소 낮더라도 재취업으로 월부족자금의 일부를 메우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 56~65세의 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1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H씨의 현재 소득인 5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월부족자금이 293만 원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재취업이 필요하다. 64세까지 재취업으로 월평균 210만 원의 소득 창출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2억 676만 원의 노후 자금 확보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늘어감에 따라 재취업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 은퇴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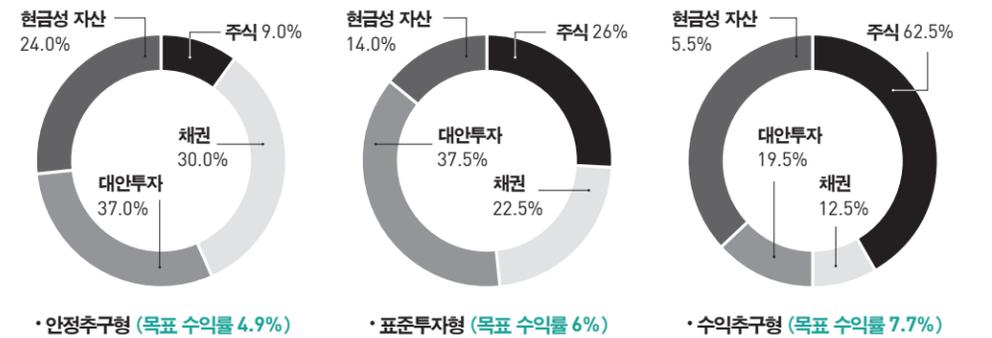
두 번째로는 실물자산의 재분배를 통한 금융자산 확대·운용 및 주택연금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H씨의 경우 실물자산으로 5억4,000만 원 규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40~49세의 순실물자산(실물자산-임대보증금) 규모가 약 2억1,000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H씨는 40대 평균에 비해 다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를 현금화해 금융자산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연금을 활용해 월부족자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펀드 4,500만 원과 예적금 200만 원을 합친 4,700만 원 규모인데, 실물자산 재조정을 통해 약 2억 원 정도를 현금화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한 금융자산 2억4,700만 원은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운용할 경

우 은퇴시점에 5억4,000만 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재취업과 금융자산 운용을 통해 조달 가능한 소득으로도 부족한 생활비 1억4,183만 원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60세에 중신 정액형으로 가입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시가 1억원 당 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포트폴리오 조정 후 남은 아파트의 가치가 3억 4,000만 원이므로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H씨는 60세부터 월 78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남은 부족자금을 채울 수 있게 된다.

한편 H씨는 현재 마이너스대출로 총 3,000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H씨가 소득이 있고, 부채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40만 원으로 대출 원리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주 : 하나대투증권에서는 '투자이야기'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 이야기", 2015.01

재취업, 어렵지만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

H씨는 다소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는 점, 은퇴 후 필요 생활비 준비, 자녀 대학 등록금 및 결혼비용에 대한 대비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 은퇴 시기까지 12년 정도가 남은 만큼 준비 기간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를 통한 투자 가능한 금융자산 확대 및 운용, 보유 아파트의 주택연금 활용 등 미래설계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뤄진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씨의 노후 미래설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설계 부족 상황 	55세~64세 노후 월 293만 원, 65세 이후 월 243만 원의 생활비 부족 자녀 학자금 1억 원 및 자녀 결혼비용 1억 5,000만 원 준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설계 방향 	64세까지 재취업을 통해 월 210만 원 규모의 소득 창출 실물자산 재조정(2억 원)을 통한 금융자산 확대 후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로 운용 재조정 후 남은 실물자산으로 주택연금 활용(매월 78만 원) 요구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누구와의 이별이건 이별은 삶에서 힘든 과정 중 하나다. 배우자나 부모와 이별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상속이 임박했을 때 취해야 할 남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세금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짚어본다.



故 신해철씨가 '넥스트'라는 그룹으로 활동할 무렵 '날아라 병아리'라는 곡을 발표했었다. 어린 나이에 병아리의 죽음을 통해서 생과 사에 대한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내용을 노래했는데, 어린 나이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처음 자신의 주변에서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자산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상속이 다가왔거나 다가올 경우, 세금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01. 불효자는 읍니다

지병을 앓는다든지, 고령의 경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된다. 보험이라도 들어났으면, 일부 보전을 하겠지만 대비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혹은 본인의 재산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병원비의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 자녀들끼리 나눠 부담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의 정서라면 자녀들이 봉양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세금의 절세측면을 고려한다면 부모님의 자금에서 소진시키는 것이 맞다. 병원비의 경우 향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02. 전세 vs 월세, 임대차계약은?

최근에는 주택의 경우에도 대부분 월세, 반전세의 형태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내동에서 전세를 내주고 있던 아파트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경우 전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올까?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낫다. 전세금의 경우에도 향후 상속세 계산시부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월세의 경우 상속재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로 임대가 더 유리하다.

03. 아파트 한 채, 언제 팔아야 하나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이 나올까? 아니면 나중에 상속 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나올까?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일반적으로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속이 될 경우에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3.16%의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속 이전에 미리 정리해 향후 현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04. 미리 선을 그어주세요

마음의 정리시간이 끝나면,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재산의 정리가 필요한데 의외로 상속 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유류분의 분쟁 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개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유언장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정서이다. 따라서 유언장을 만들어 미리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아말로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장도 자필 유언장으로 작성할 경우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05. 장례비 영수증 다 챙겨야 하나요?

장례를 치르면 한번도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낯설음, 조문 행렬등으로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을 다 챙겨야만 하는 걸까? 상중세법에서는 500만원까지의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인정을 해준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증빙을 챙기는 경우에 한해 1,000만원까지 장례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매장 형태 장례를 치루는 것이 아니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형태로 치르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적인 지출금액을 인정해준다. 즉 장례비용의 경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쓰는 경우로서 증빙을 챙기는 경우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것이다.

06.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은 상황에서 운영하시던 회사주식, 아파트, 상가, 현금이 남겨진 경우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현금은 배우자가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하고(단, 상속세가 받은 현금재산 범위 내여야 함),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향후 배우자의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분배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받을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0.96%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매각순위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본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들보다는 주택이 없는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낫다.

상속임박시 대응방법	
1. 병원비	피상속인의 카드(재산)으로 계산
2.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	채무로 공제가 가능
3. 아파트	미리 정리해 나눠주는 것이 취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
4. 유언	공정증서로 준비해놓는 것이 확실
5. 장례비	증빙을 챙기는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6. 재산분배 시	현금재산은 배우자 몫으로 해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활용

노후를 대비한 의료비 보장, 질병보험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질병과 상해 발생률, 의료비 지출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협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4배나 증가했다. 감기나 골절처럼 가벼운 병은 문제없으나,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의 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고령자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사망할 때까지 이러한 중증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으로 차곡차곡 준비를 했더라도 이러한 노후 자금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다 써버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노후 준비로 질병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질병보험을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버보험, 혹은 노후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40~50대 이상 은퇴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는 등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측면에서도 특정 질병은 진단자금을 2회 이상 지급하거나 건강관리자금의 개념을 확대해 연금처럼 지급하는 등 고객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생명의 '행복knowhow-Top3건강보험(보장성)'의 경우 3대 중증질환을 100세까지 보장하면서 납입 기간 종료 후부터는 매월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건강관리자금으로 돌려받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페이백(Pay back)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질병보험 가입 시에는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갱신형 상품은 보험기간을 3년, 5년 등으로 설정한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나이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재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이다. 보험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만큼 초기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하나 갱신 시점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갱신형 상품은 보험가입시점에 보험료가 확정되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는 상품으로 초기에는 보험료가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어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주요 질병보험 상품

회사	상품명	주요 내용
하나생명	행복knowhowTop3건강보험 (보장성)	매월 기납입 보험료를 연금처럼 건강관리자금으로 수령 가능
현대해상	계속받는 암보험	암 진단 시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금 (최대 2천만원)을 지급
동양생명	수호천사 실버 암보험	가입나이를 61~75세로 확대한 실버세대 전용 보험
신한생명	신한유니버설6대건강중신보험	3대 질병에 더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는 말기 3대 질병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을 추가

어느 것을 먼저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갑자기
필요한 돈

행복한 금융, 하나생명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최소 노후
생활비

평균수명(81세)까지 생존시 암 발생률 3명중 1명 (통계청)

뇌혈관질환 진료환자 50대 이후 8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부부 월 137만원
개인 월 83만원

(국민연금연구원 제4차보고서 2014년)

돌려 받고, 보장 받고, 가족 선물 Plan이 가능한

무배당 **행복 knowhow**
[행복미래설계]

Top3

건강보험(보장성)

- 이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연금)이 아닙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로도리, 인생2막'과 (주)이로도리

세 할머니들의 인생반란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가슴 두근거리본 적은 언제인가? 여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위해 과감히 도전을 '감행'한 세 사람이 있다.

더군다나 칠십이 넘은 나이에 말이다. 영화 '이로도리, 인생2막'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 영화는 분명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

몇 년 전 필자가 교토에 위치한 어느 유명 두부 요리집에 갔을 때였다. 먹음직한 두부 요리보다 시선을 끈 것은 요리를 장식한 나뭇잎들이었다. 젓가락을 대기 미안할 정도로 정성스레 장식된 두부 요리를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자 요리사가 말을 걸어왔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희 집 두부 요리를 장식하는 나뭇잎들은 모두 이로도리 것입니다.”

‘이로도리’라는 이름을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요리사는 이로도리가 어느 산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공급해주는 깨끗한 나뭇잎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내 많은 음식점 및 다양한 나뭇잎 장식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주)이로도리의 나뭇잎 장식(츠마 妻)을 흔히 볼 수 있다. 나뭇잎 장식을 주된 사업 품목으로 하고 있는 이로도리는 작게는 마을 기업으로 지역 사업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연매출 45억 엔에 달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로도리를 만든 이들은 다름 아닌 70살이 넘은 할머니들이었다. 영화 '이로도리, 인생2막'은 이 할머니들의 인생 2막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100살을 산다면 70은 아무것도 아냐!”
“아직도 꿈을 꿀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아!!”**

청년들은 모두 도시로 가고 남은 것은 연세 지긋한 노인들뿐인 일본의 어느 산골 마을 가미카쓰 냉해로 인해 산골 마을의 주 수입원이었던 밀감이 흉년이 들자 사는 것이 곧 전쟁이 되어 버렸고, 허리 휘는 노동은 끝이 없다.

마을의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청년은 할머니들이 어렵게 재배한 무를 하나라도 내다 팔려고 애쓰지만 그마저도 녹록치 않다. 마을 어른들은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 도통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협동조합 청년은 음식점에서 우연히 요리를 장식한 나뭇잎을 보게 된다. 청년과 이 마을 소꿉친구 할머니 세 명은 산골 마을의 깨끗하고 다양한 나뭇잎을 손질해 팔기로 의기투합한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냉랭하다. 무언가 해보려는 할머니를 돕지는 못할망정 할아버지는 여전히 뼈딱하기만 하다. 아내가 나서서 나뭇잎 사업을 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설쳐대는 게 못마땅하다. 남편의 소 유물처럼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카오루 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남편이 죽은 뒤 홀로 남아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자식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만 기다리는 외로운 하나에 할머니, 교사가 되었다고 남들을 속이며 학교 정원으로 살던 삶을 고백하던 미치코 할머니까지,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힘을 합해 나뭇잎 사업을 발전시켜 나간다.

영화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할머니들의 삶도 변화해 간다. 나뭇잎이 어떻게 요리에 활용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찾아간 고급 요리집에서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들을 냉대하는 식당 안주인에게 카오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 흥분이다! 이제서야 내 삶을 살게 된 것 같다. 제발 도와달라!”

그 말은 그녀 자신의 삶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나이든 다른 사람에게 의해 좌우되는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몫과 선택으로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후회하지 않고 죽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
“아직 뭐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 어디에서든”**

칠십이 넘은 나이에 무엇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내다본다면 일흔이라는

나이는 무엇인가를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진 나이이다. 물론 개인의 결심이나 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나 정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영화에서는 할머니들의 강한 의지와 동지애가 한 축을 이루고, 또 다른 한 축은 협동조합 청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셈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행복이 되고 있다. 자신만의 건강한 철학을 갖고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 의지를 갖고 사는 삶 말이다.

‘이로도리, 인생2막’의 실제 주인공 (주)이로도리의 요코이시 도모지 씨는 누구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영화 중 미치코 할머니의 대사를 소개한다.

“후회하지 않고 죽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 아직 뭐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 어디에서든.”



반짝 반짝

아이 안티 에이징 프로젝트

EYE ANTI AGING PROJECT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온통 우리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빵 빵한 냉난방시스템,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현대인들의 눈은 더욱 바빠졌다.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 중 하나인 눈. 우리가 가장 무심경한 부위도 바로 눈이다. 그래서 안질환은 진행이 한참 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더 늦기 전에 젊고 건강한 눈을 위한 '아이안티에이징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자. Right Now~!

노안 증상은 보통 45세 전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30대 후반부터 노안증세로 고민 가득한 젊은이들이 많다. 우선 당신의 눈 건강상태부터 꼼꼼히 점검해보자.

수면을 충분히 취했는데도 눈이 건조하고 아프거나 눈 부위가 무겁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글씨를 읽기 어려운 상태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눈의 피로가 매우 심각한 '안정피로'단계이다. 안정피로는 갖가지 안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눈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신이 지치면 혈액과 함께 안압이 상승한다. 안압은 안질환의 원인이 되며 급성 녹내장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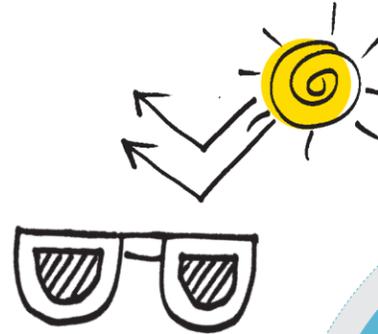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불편한가? 그럼 안구건조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안구건조증은 노화 증상 중 하나지만 최근 눈의 피로가 과중된 라이프스타일로 20대도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TIP. 눈에 좋은 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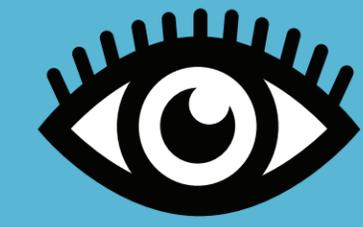
- 결명자차** 결명자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 눈 건강을 지켜주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라는 뜻이기도 한 결명자차를 매일 물대신 꾸준히 마셔주는 것이 눈 건강에 효과가 있다.
- 구기자차** 구기자는 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간 건강을 증진시켜 눈의 피로도를 덜어준다.
- 블루베리차**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 눈에 작용해 눈을 건강하게 한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기도 하며, 특히 눈을 맑게 유지시켜주는 데 탁월하다. 블루베리 농축액을 물에 타서 꾸준히 마셔주면 좋다.
- 여주차** 여주라는 열매는 망막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고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특유의 구수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
- 페퍼민트차** 페퍼민트에 함유된 멘톨 성분이 눈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다. 페퍼민트에서 나는 특유의 강한 향이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 복분자차** 복분자에는 눈 건강을 개선시켜주는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복분자는 신맛과 단맛을 가지고 있어 식후에 즐기기 좋은 차다.
- 감잎차** 감잎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멋지게 선글라스 착용하기
피부뿐 아니라 눈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다. 외출 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가급적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눈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수정체가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활성산소가 발생되고 이 활성산소가 수정체를 탁하게 만들어 각종 안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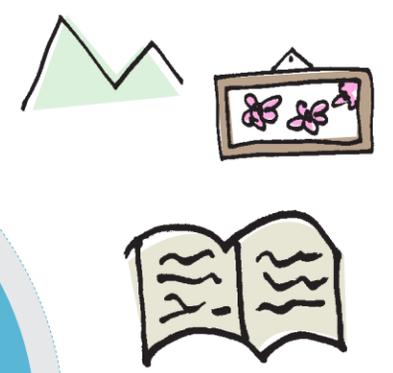


안구스트레칭
먼 사물을 10초에서 20초, 가까운 물체를 10초~30초가량 응시하는 운동은 안구의 근육이 고정되는 것을 막아준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직접 현장에서 관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연스럽게 먼 곳을 응시하게 되고, 공의 움직임에 따라 활발한 안구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다. 눈 주위에 경혈 자극도 좋다. 눈썹 가까이 뼈를 따라가면 눈 주위를 지그시 누르며 지압을 해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눈 건강 지키는 라이프 스타일



느릿한 시선 처리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 이러한 성향 때문인지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할 때도 대충대충,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무심코 훑~지나치고, 책을 읽을 때도 후다닥 읽어버리기 쉽다. 이젠 좀 더 여유를 갖고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하나하나, 풍경 앞에서도 차근차근, 책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는 습관을 들여보자.



전자기기 똑똑하게 보기
TV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똑바로 앉거나 서서 시청하는 것이 좋다. 거리는 19~20인치의 경우 3미터가 적당하다. 3시간 이상 연속으로 보는 것은 자제한다. 조명없이 TV만 환하게 켜두는 것은 금물이다. 스마트폰을 볼 때는 전철 등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머리를 숙이지 않고 눈높이로 보는 것을 습관화하고, 누워서 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의 화면 밝기는 너무 밝지 않게, 렌즈 대신 안경, 30분마다 휴식의 규칙을 잘 지키고, 늦은 밤시간에 컴퓨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공급
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이다.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눈물이 줄어들게 되고, 눈에 상처가 잘 날 뿐 아니라 피로도 빨리 온다. 평소 8~10잔 정도 수분섭취를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단, 커피, 홍차, 일반 음료수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주 깜박거리기
컴퓨터, 스마트폰, TV 화면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무의식중에 눈 깜박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눈에 긴장이 과중된다. 평소 의식적으로 눈깜박거리를 자주해보자. 눈을 깜박이면 위쪽 눈꺼풀의 눈물샘에서 눈물이 흘러 촉촉이 눈을 적셔준다. 또 눈 속의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눈 주위의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준다.



소소한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동네 벼룩시장

알록달록 패션소품, 누군가의 추억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골동품, 직접 재배한 유기농 야채,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베풀어주는 장난감들. 최근 이웃과 소소한 나눔의 장으로 '벼룩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삭막한 사회 분위기를 거슬러 싹트는 벼룩시장은 이웃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꽉 채워진 나를 비워내는 힐링의 공간역할을 특특히 해내고 있다. 활기찬 시장 한구석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주 특별한 보물찾기, 도심에서 열리는 우리 동네 벼룩시장에 함께해보자.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은 세상에서 가장 흥겨운 공간이다. 어떤 이는 시장을 사람들의 삶이 응축된 터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시장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일상의 장면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진 듯하다.

안 쓰는 물건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려는 이들,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이들, 이웃에게 자신의 재능을 알리고 싶은 아티스트들, 손재주 좋은 블로거들 등 다양한 이웃들과 부대끼고 싶다면 벼룩시장에 참여해 신선한 충격을 맛 보길 바란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닌 사람이 어우러지고 문화가 공존하는 이 특별한 시장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넘쳐난다.



서울도심 속 재미난 벼룩시장	
소소	소규모 창작물, 독립출판물, 디자인 소품 등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재활용품, 수공예품, 전통 먹거리 등
마르쉐@혜화	홈메이드 과일잼, 농산물 등
씨리마켓	액세서리, 중고책, 디자인소품 등
마포 늘장	중고용품, 먹거리, 핸드메이드 제품 등
프리마켓	에코백, 패브릭, 일러스트 등
밤삼킨별	수공예품, 패브릭, 티타임 세트 등
영등포 달시장	재활용품, 먹거리, 수공예품
이태원 계단장	빈티지 의류, 수공예 그릇, 액세서리 등
가로수길 라스트 프라이데이	리빙 브랜드, 액세서리, 가족 소품 등

01. 마르쉐@혜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한 달에 한 번 이곳에는 마르쉐 마켓이 열린다.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마르쉐는 농부, 요리사, 아티스트가 한 곳에 어우러져 이색 장터가 형성됐다. 먹기도 아까운 예쁜 유기농 먹거리가 장터의 주를 이룬다. 또한 생기 넘치는 이웃 간의 대화가 활기를 더한다. 어떤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는지, 다음 달엔 어떤 음식을 준비할 것인지 등 오고가는 정겨운 대화가 장터의 묘미인 듯하다.

02. 동묘벼룩시장

서울 종로구 동묘공원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동묘 벼룩시장. 1980, 90년대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의해 밀려난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말 벼룩시장이다. 이곳에 가면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물건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랜 역사를 증명해보이듯 각종 골동품과 옛날 가전, 음반, 헌책, 구제외류 등 물품도 다양하다.

03.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유기농 농작물, 직접 재배한 감자로 튀겨낸 감자칩, 텃밭에서 수확한 과일로 만든 잼, 핸드메이드 헤어액세서리, 천연염색 옷 등 광화문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벼룩시장 '희망나눔장터'가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셋째 주 일요일(11월~다음해 3월까지 휴장) 교통 통제로 이뤄지는 희망나눔장터에서는 농부에서부터 외국인, 수집가들 다양한 셀러들이 함께하고 있어 더욱 재미가 넘친다.

04. 마포벼룩시장 '늘장'

서울 공덕역 인근 마포벼룩시장인 '늘장'. 이곳은 월요일(1월은 휴장)만 빼고 늘 열리는 시민의 장터라는 의미에서 늘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시민들은 신청서를 내고 만원이 채 안되는 참가비만 내면 누구나 이곳에서 물건을 팔 수 있다. 직접 만든 과일청, 수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들이 시선을 끈다.

05.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여느 벼룩시장과는 달리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 매주 토요일(12월~2월 휴장)이곳은 패션의 거리 홍대답게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자신만의 작품을 판매하는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벼룩시장이다. 손 그림 도자기, 특이한 액세서리, 독특한 인테리어 장식품까지 흔히 볼 수 없는, 그러나 아티스트들의 온기가 가득한 물건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06. 이태원 계단장

좁고 긴 계단엔 셀러들과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수공예 그릇, 빈티지 의류, 액세서리, 다양한 먹거리들이 골목길 안을 꽉 채운다. 바로 이태원의 벼룩시장 풍경이다. 이슬람 사원 뒤쪽을 따라 위치한 우사단로에서 한 달(11월~다음해 2월 휴장)에 한번 열리는 '계단장'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년과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우사단단'이라는 단체가 시장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다. 주로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지만 가족, 학생, 40~50세 고객들도 늘고 있다.



세제혜택 상품을 활용한 저금리 시대 미래설계를 위한 투자전략



미래설계를 위한 방안으로 지혜로운 세테크 전략은 어떨까. 절세상품이 미래설계를 위한 투자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향후 세금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여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등 4가지 유형의 절세상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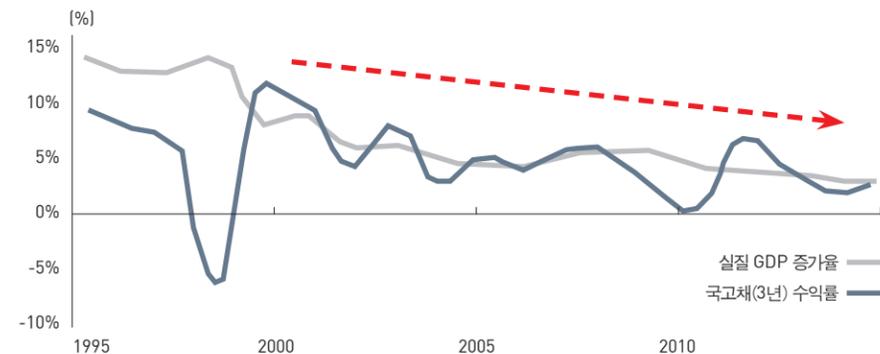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를 기록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2019년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선진국 대비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최근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적절한 투자처 부재 등도 젊은 층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1999년 10.7%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저성장 국면 하에 가계 디레버리징과 주택시장 조정 압력 등은 저금리 기조 고착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안정적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투자자 니즈 증가와 함께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라 투자자의 금리 및 수익률 민감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절세상품은 미래설계를 위한 투자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향후 세금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여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테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등 4가지 유형의 절세상품에 대해 살펴보자.

소장펀드 및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상품으로는 소장펀

드(소득공제용 장기펀드)와 청약저축을 들 수 있다. 소장펀드는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해당액인 24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으로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 급여 기준이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이후 최대 10년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한 유일한 범용 소득공제 상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한 상품이다.

소장펀드와 유사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으며, 다만 동 상품의 경우 주택 구입 등 특수 목적에 한정되어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5년 이상 해당 상품을 유지해야 한다. 2014년까지는 연간 납입액 12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됐으나, 세법개정으로 2015년 귀속소득부터는 납입액 최대한도 240만 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48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2017년 납입분까지 3년간 기준 납입한도 120만 원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년 이상 유지 시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

GDP 성장률 및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 상품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의 경우 그동안 연 납입액 중 400만 원 한도(퇴직연금과 합산)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14년 귀속소득부터는 12% 수준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금저축 상품의 세제혜택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지난해 제도개편으로 중도인출 기능이 더해진데다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상품 매력도는 증가했다. 특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저축 상품은 여전히 매력적인 절세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덧붙여 2015년 귀속소득부터는 개인이 불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준다. 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최대 84만 원까지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연금이라는 상품 취지와 달리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지 않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절세혜택은 사라진다.

재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및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관련 상품은 아니지만 '저소득 요건' 등 소장펀드와 동일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재형저축이 존재한다. 2013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예금, 펀드, 보험 중 선택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으로, 7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 및 배당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비과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 원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장펀드와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다만, 재형저축도 소장펀드와 마찬가지로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또 다른 금융상품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된 상품이다.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 게 3,000만 원 한도로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주는 상품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경우 1,000만 원,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의 경우는 3,000만 원 한도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해주던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2014년 말로 세제혜택이 일몰되면서 2015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고 가입조건도 강화되었다. 즉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로 강화된 대신 비과세 혜택 규모는 5,000만 원 한도로 확대되었다.

경과규정으로 2015년의 경우 61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연령이 1세씩 상향 조정된다. 금융자산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자산가라면 비과세되는 저축성 보험도 고려해볼만 하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으로, 일시납 장기 저축성 보험 및 즉시연금의 경우 1인당 2억 원까지, 적립식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금액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및 하이일드펀드 등

분리과세 상품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자산가들은 종합과세로 최대 41.8%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을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최저 15.4%로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리과세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만기 10년의 장기채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등이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이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투자자가 원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33%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2013년 이후 발행된 채권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 시 발행 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 봐야 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중소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BBB+ 이하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함과 동시에 BBB+ 이하 등급의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에 30% 이상의 자산을 투자해야 하며, 펀드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당초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회사채 시장 양극화가 장기화되면서 2015년 말까지 가입이 1년 더 연장되었다.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절세상품 활용 필요

최근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는 등 근로소득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종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아 오면서 올해에도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근로자들이 바뀐 세법개정에 따라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근로자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연말정산 제도를 보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는 했으나,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세액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세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과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증식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절세상품 제공혜택 비교

구분	가입자격	세제혜택 한도	가입기간	세제혜택
소득공제				
소장펀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가입 이후 소득공제 유지 • 요건(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초과 시 당해 연도 소득공제 불가	연간 600만 원	최소 5년~최장 10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240만 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간 240만 원	5년 이상 가입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96만 원 한도
세액공제				
연금저축	제한없음	연간 400만 원	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연 48만원 한도
퇴직연금	근로소득자	추가 300만 원	만 55세 이후 수령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비과세				
재형저축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연간 1,200만 원 • 분기당 300만 원	최소 7년~최장 10년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5,000만 원	-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저축성보험	제한없음	제한없음 • 다만, 일시납 장기저축성 보험 및 즉시연금의 경우 1인당 2억 원	10년 이상	보험차익 비과세
분리과세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제한없음	-	2013년 이후 발행분 :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위해 3년 이상 보유	이자소득에 대해 33%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제한없음	인당 5,000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이자소득에 대해 15.4% 분리과세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중국의 구조개혁과 경기 연착륙

최근 중국 경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투자·수출 위주의 양적(Quantity) 성장에서 민간소비·내수 위주의 질적(Quality)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중국의 구조개혁 조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30년 이상 두 자리대 고성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미국과 함께 G2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2010년 3·4분기 이후 성장률이 한자리대로 추락했으며, 최근에는 11분기 연속 8% 미만의 성장률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한자리대로 추락한 가운데,

일부에서 경착륙 가능성 제기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회장 등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낮은 도시화율 수준과 중국 정책당국의 적절한 대응능력 등으로 중국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과 민간 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 등은 중국 경제의 여러 가지 모순이 표출될 경우 2020년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Hard-Landing)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중국 경제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투자·수출 위주의 양적(Quantity) 성장에서 민간소비·내수 위주의 질적(Quality)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구조조정 및 신용 리스크 억제 등 정책당국의 의지(?)에 힘입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소비, 생산, 투자, 수출 등 대부분의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과잉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기업도산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기술·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물류 및 금융 서비스 산업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한·중·일 장기 성장률 추이 비교(올림픽 개최 연도를 기준으로 재정렬)



있으며, 정보화 혁신 추진, R&D 투자 확대 등 산업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국무원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소유구조 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은 구조조정으로 실물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확산될 경우 선별적 금융완화 및 미니 경기부양 등을 통해서 경기 모멘텀이 유지되고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충분한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내성(Tolerance)으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부양의 강도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일본이 겪은 성장률 둔화

중국도 겪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어느 나라든지 경제개발 초기에는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과 노동 및 자본 투입과 같은 양적성장 전략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는 성장률의 둔화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출·양적위주 성장전략을 취해 온 한국, 대만 및 일본 등의 경우 1인당 GDP(PPP 기준)가 미국의 50% 수준에 도달한 이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경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중국의 성장모형도 한국과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겪은 성장률 둔화를 중국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위주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빠르게 서구 기업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면서 10%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오일쇼크와 엔화가치 상승 등으로 생산성 향상이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한자리대로 하락했다. 급기야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엔화가치 고평가와 버블붕괴로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노동공급이 감소세로 반전됐으며, 최근 자본투입도 둔화되면서 제로성장기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62년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기존의 수입대체화 정책에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 이후 과감한 자본축적과 노동력 공급에 힘입어 본격적인 고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산성 개선 등의 질적 성장보다 자본 및 노동력 투입에 의존한 양적성장

에 치중하다가 생산성 하락과 투자효율 감소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200% 유지, 대기업 빅딜, 부실 금융기관 퇴출, 금융시장 개방 등의 구조개혁과 원화가치 하락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반대로 투자부진으로 자본축적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성장을 둔화가 지속되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본적인 구조개혁보다 위기관리에 치중하면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자본축적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식 저성장·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1970년대 이전까지 기술수준과 자원부족 상황을 무시한 채 공산당 주도하에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의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성장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생산성 개선과 자본축적에 힘입어 40년 가까이 1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인적자본 확충도 1970~80년대 고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1990년대 이후 노동력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높은 생산성 유지와 지속적인 자본 확충으로 고성장 유지에 성공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충격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총요소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됐고, 대규모 투자로 자본을 확충하면서 경착륙을 방지하고 있는 중이다.

성장률 하락 예상되지만 경착륙 우려는 과다, 중장기적 구조개혁의 성패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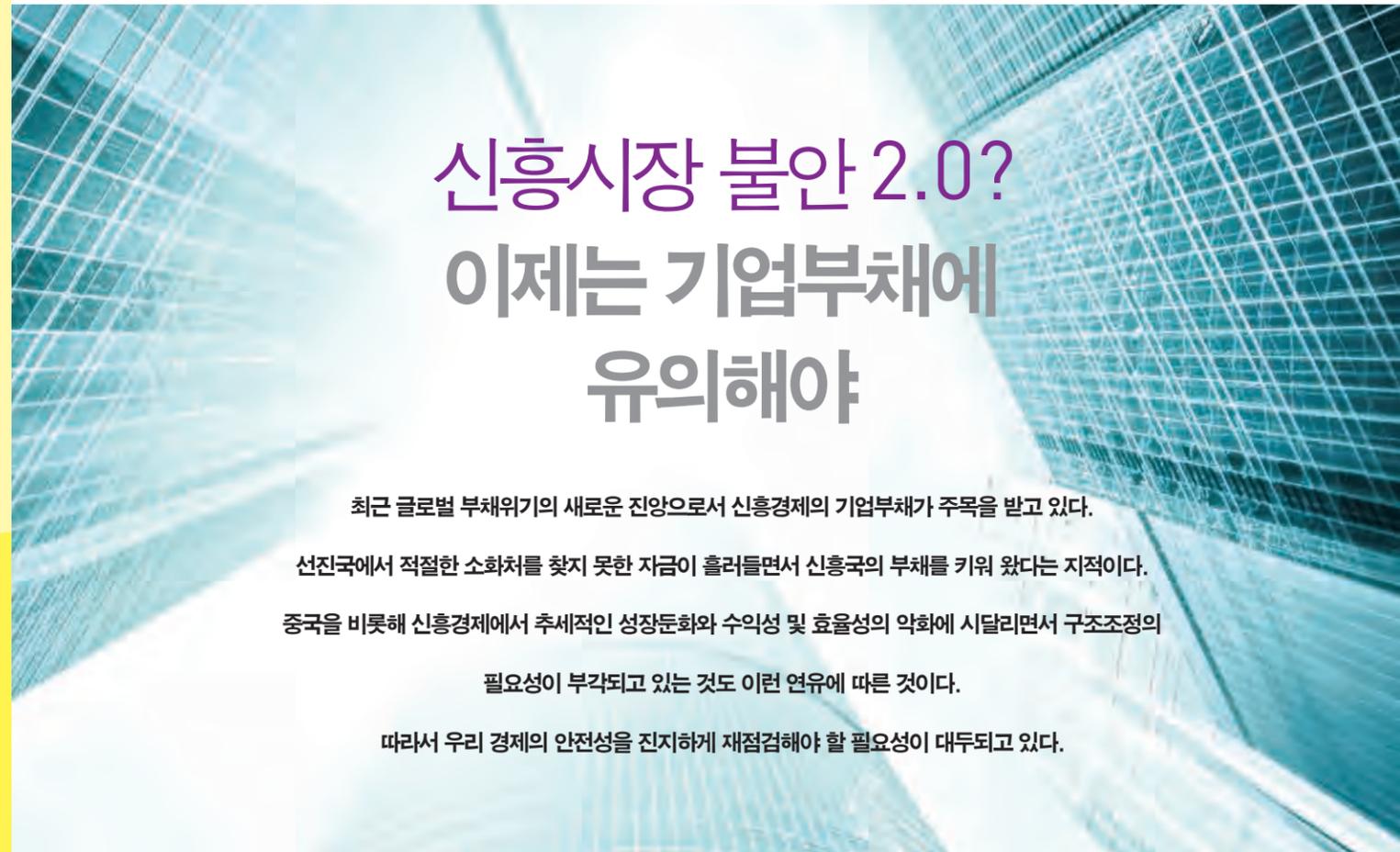
중국 경제는 대규모 자본축적과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 수준 등으로 아직까지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사례로 볼 때 중국 경제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와 제조업 및 설비투자 비중 하락, 위안화 절상 등으로 성장률의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1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1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59세)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성장모형 전환으로 대규모 투자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본투입 기여도의 하락도 예상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사례와 같이 중국이 과감한 구조개혁에 성공할 경우 생산성의 반등과 이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현 수준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단행했으며, 이와 같은 구조개혁에 힘입어 생산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도 했다[한국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비교(% , 기간평균): -0.2(89~98) → 1.6(99~08) → 0.3(09~13)]. 모건스탠리도 중국의 구조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경우 향후 5년 간 성장률이 평균 5% 수준대로 추락할 것으로 경고했지만, 구조개혁이 90% 가량 성공할 경우 성장률(2016~2020년)이 7%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1인당 GDP(12,890달러, 2014년 기준)가 미국(54,680달러)의 1/5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의 낮은 사회간접자본(SOC) 수준과 도시화를 등을 감안할 때 자본축적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의 근로자 1인당 자본스톡은 미국의 6%, 한국의 16%에 불과한 상황이며, 중국의 도시화율 수준도 53%(2013년 기준)로 선진국 평균(75.5%)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는 경제규모 확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자본축적 지속과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유효 등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성장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전혀 새로운 성장경로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는 경제규모 확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지만, 자본축적 지속과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유효 등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성장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흥시장 불안 2.0? 이제는 기업부채에 유의해야

최근 글로벌 부채위기의 새로운 진앙으로서 신흥경제의 기업부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 적절한 소화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흘러들면서 신흥국의 부채를 키워 왔다

중국을 비롯해 신흥경제에서 추세적인 성장둔화와 수익성 및 효율성의 악화에 시달리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안전성을 진지하게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지 이미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그 충격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마다 새롭게 '정상화'의 꿈을 꾸지만, 거듭되는 여진에 늘 좌절만 반복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출구전략과 맞물린 금융 불안의 반복은 물론 유로존의 일본식 장기불황 위험 등이 단적인 예다.

디레버리징 기대에도 부채는 오히려 증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찾는다면, 이른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 부채 감축)'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부채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1990년대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그 결과는 '역시나'였다.

이런 교훈은 그저 말뿐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채 의존적인 경제성장의 취약성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정작 지금도 세계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에 핵심적인 충격기제로 작용했던 가계부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경기부양 차원의 정부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업 부문에서의 부채도 급증한 탓이다.

게다가 지금은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 문제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부채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의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됐지만, 신흥국의 부채는 2011년 이후 급증하면서 세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부채의 동향이 크게 바뀐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은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다. 당초 일회성의 충격에 그치고 이내 세계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매년 계속해서 눈높이를 낮춰야 했다. 또 이 때문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지원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부채할정 위험, 취약고리는 신흥경제

이런 맥락에서 세계 '중앙은행의 은행'을 자임하는 국제결제은행(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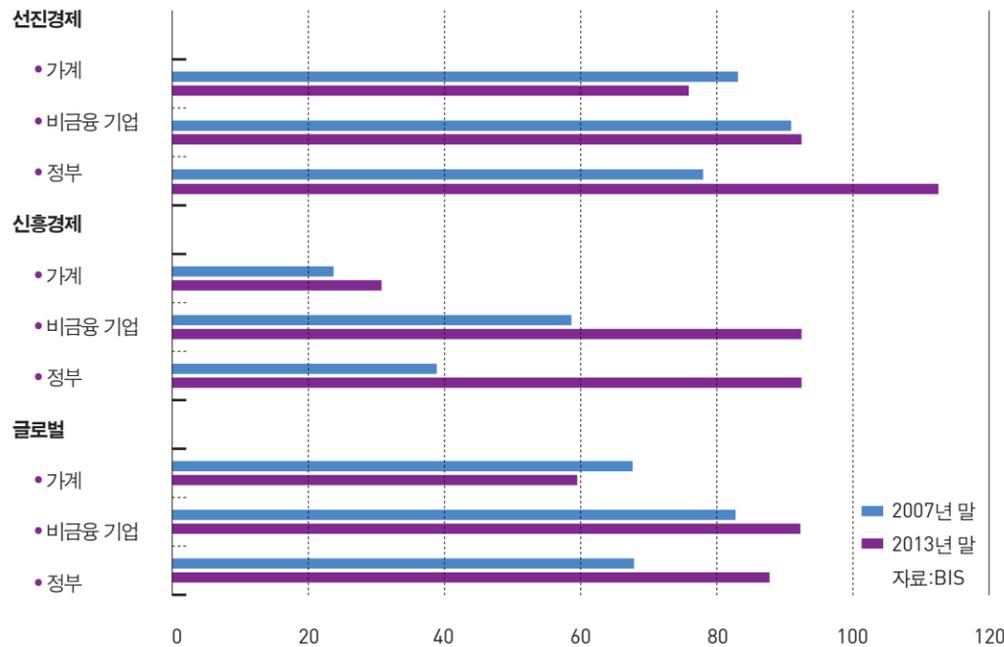
은 '부채합정'의 위험을 경고한다. 그동안 부채에 의존해 온 성장 과정에서 정작 자원운용의 왜곡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계 부채 증가를 견인했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부채합정은 고부채가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우선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상환 부담을 지탱하기 위해 저금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저금리 탓에 많은 돈이 풀리는데, 저금처럼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기존 부채상환이나 일종의 화폐퇴장으로 전용되고 만다. 후자의 경우 유동성 관리나 예비자금 확충을 위한 기업저축 증대가 대표적인 예다. 결국 풀려난 돈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비생산적 투자로 귀착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주목을 끄는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적 경제 석학인 로렌스 서머스가 제안한 이 테마는 미국 등 선진국 위주로 세계 경제가 만성적인 수요결핍 탓에 장기간에 걸친 성장정체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데 주목한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의 부양책은 대부분 부채 누적으로 귀결되어 반복적인 거품, 혹은 금융 불안만 양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적절한 소화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흘러들면서 신흥국의 부채를 키워 왔다. 최근 중국을 비롯해 신흥경제에서 추세적인 성장둔화와 수익성 및 효율성의 악화에 시달리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흥경제의 부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 주요 경제 석학들이 모여 매년 한 차례씩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들을 진단하는 일명 '제네바보고서'는 얼마 전 글로벌 부채조정 현황을 점검하면서 부채위기의 새로운 진앙으로서 신흥경제의 기업부채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출구전략, 부채 의존적 세상의 스트레스테스트

미국 연준의 출구전략이 새삼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런 연유다. 흔히들 최근 기대를 모으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 편승해 이른바 '경제 정상화' 차원에서 출구전략, 즉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주목하지만, 실은 부채합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러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구전략은 부채 의존적인 세계경제의 시스템 안정을 시험할 일종의 '스트레스테스트(Stress-Test)'인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글로벌 자금흐름의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신흥경제 각국의 체질이나 내성이 대대적인 시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안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 원천으로 부각되던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물론,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폭풍의 눈으로 떠오른 러시아 위기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해도 국제 자금흐름은 대부분 선진국에 치중된 것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2~2008년 중 국제 자금흐름의 90% 정도가 선진국에 집중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세계경제의 비금융부채 추이 (각 연도 명목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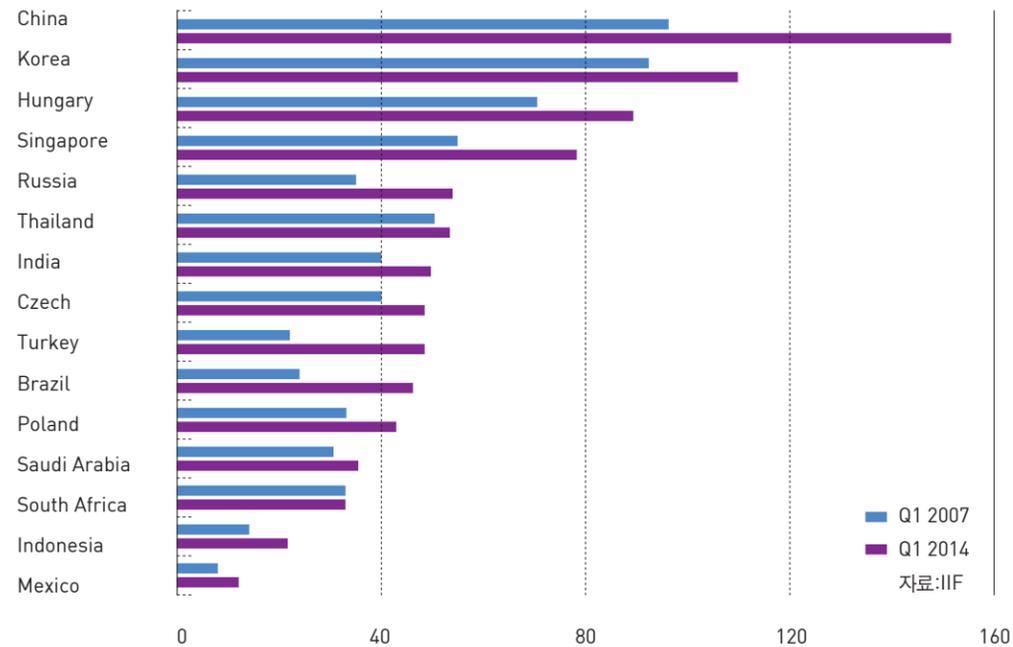
위기 이후 이 같은 상황은 크게 뒤바뀌고 있다. 2010~2013년 중 국제 자금흐름의 50% 이상이 신흥경제에서 돌고 있는 것이다. 연준을 비롯해 주요국의 통화부양책으로 풀려난 자금이 신흥경제로 흘러 들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제 연준의 출구전략을 매개로 글로벌 차원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신흥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될 공산이 크다. 이미 지난 2013년 연준의 테이퍼링(Taper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신흥시장이 요동을 쳤던 경험이 단적인 예다. 이제 연준발 '신흥시장 불안 2.0'을 대비해야 할 때일까?

2015년, 신흥시장 부채위기 항방에 유의할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들어 신흥시장 불안이 점차 차별화의 속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흥시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충격보다는 각국별로 나름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충격이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신흥시장 불안기 초기에는 신흥시장 전반이 광범위하게 흔들렸지만, 점차 위기국과 우량국 간에 차별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에는 초점이 경상수지와 외자 의존성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쌓고 외채구조가 꾸준히 개선되어 온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인 수혜를 누리기도 했다. 2014년 초에도 아르헨티나 외채위기 등을 매개로 신흥시장 불안이 이어졌지만, 당시 쟁점은 외

환보유액에 맞춰졌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별 충격이 없었다. 최근의 러시아발 충격도 이런 맥락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는 점차 초점이 기업부채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실제로 러시아 위기의 실체도 정부 등 공공부문이 아니라 기업 등 민간부문의 건전성 악화다. 최근 유가 급락으로 러시아 경제의 주동력인 에너지 소득 감소가 치명타로 작용했지만, 역시 본질은 연준의 출구전략을 앞두고 신흥경제 부채의 취약성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러시아 위기는 그저 '탄광의 카나리아 새'일지 모른다. 최근 재부각된 그리스 위기도 더 이상 유로존 통합체제의 붕괴 위기가 아니라 이런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흥시장 부채위기 항방과 관련해 역시 쟁점은 중국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 통제가 강한 데다 자본통제로 인해 연준발 충격 등 대외 금융불안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하지만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단계적인 금융개방이 이어지면서 점차 이러한 안전판이 부식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외 불안에 어느 정도 면역력을 키워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역시 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나 가계부채 급증 등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의 건전성에 점차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015년, 연준발 출구전략 및 신흥시장 부채위기의 가능성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안전성을 진지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신흥시장 기업부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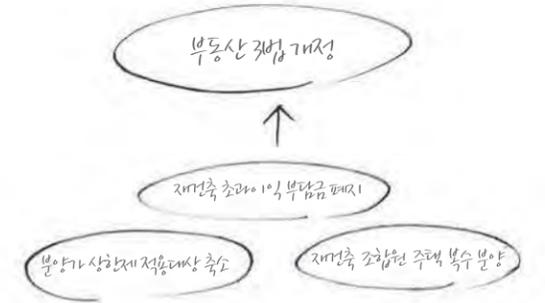


부동산 3법 개정, 시장회복 이끌까?

부동산 3법의 개정이 과연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인가?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축소, 재건축 조합원 복수 분양 허용이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당분간은 저금리 유지 여부가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2월 23일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복수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 회복제를 투입한 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017년까지 유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06년도에 도입된 조치이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를 부담으로 환수한다. 금융위기 이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실제 부가가 된 곳은 서울 중랑구 우성연립, 정풍연립 등 4곳에 불과했으며,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부가가 유예된 상태였다.

지난 9월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부에서 규제완화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우수한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재건축 사업에서 일반분양실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주공 2단지, 주공 3단지, 시영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최근 조합원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되기도 했다. 초과이익 부담금이 재부과될 경우 재건축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다. 이번에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시장의 급랭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분양가 상한제, 공공 택지에서만 적용될 가능성 높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모두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작년 말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등이 포함되는 민간택지에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①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 ②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거래량 3배 이상 의미) ③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 초과 등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상한제 적용가능 지역은 서울 송파, 부산 남구, 인천 중구, 창원 진해구 등 4개 지자체에 불과하나 최근 주택가격 및 거래량 추이로 볼 때 상한제가 실제 적용될 지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분양 가능

원래 재건축 조합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건축 이후 한 채까지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주택은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므로 초기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법안 개정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건축 사업지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3법 통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서울시 재건축 단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 등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던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올해 1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서 상승폭이 크다.

서울시 재건축 단지가 최대 수혜지역이나 반짝 효과에 그칠 수도

부동산 3법 통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서울시 재건축 단지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 등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던 서울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올해 1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서 상승폭이 크다.

작년 9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두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듯이, 이번 조치 역시 반짝 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준공될 때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건축 아파트는 리스크가 큰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가 주택인 경우가 많아 시장 환경에 따라 가격 변화가 크다. 2010년 이후 주택시장이 부진을 겪으면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10% 하락하는 동안 재건축 아파트는 20%나 가격이 하락한 바 있다.

최근 분양시장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2014년 수도권외의 최고 히트 상품은 위례신도시였다. 강남권 전세가격 수준인 평당 1,700~1,800만 원 대에 분양하면서, 위례신도시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까지 치솟기도 했다. 여전히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지만, 위례신도시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웃돈 수준은 절반으로 줄었다.

향후 거시경제 및 금리 동향에 주목할 필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이슈는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수요자의 중소형 주택 거래 위주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고 주택대출로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저금리 유지 여부가 시장의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직결되어 있거나, 최근 경제상황을 볼 때 상반기 내에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함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흐름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세금 다이어트 답은?

적립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 적립 IRP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W 가입 효과

- 납입금액 (연간 700만원* 한도) ×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2015 세법개정)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 (연행) 연금저축 + 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 400만원 + 퇴직연금 별도 한도 300만원

EX	구 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납입금액		0원	7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700만원	0원	400만원

주) DC근로자추가납입분 + 적립IRP납입분 + 연금저축 납입분 합산 기준

W 가입대상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 IRP 가입자
- 퇴직 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 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함

W 운용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 :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외 다양한 타금융기관 상품 제공
- 집합투자상품 (수익증권) : 적립금운용위원회에서 엄선한 12개의 자산운용사의 44개 수익증권 제공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원리금보장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운용방법을 집합투자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원금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펀드를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MMF의 경우 장부가과 시가의 차이가 ±0.5%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제재관련 사항은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hanabank.com) 또는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스위스 연금제도

3층 연금시스템이 국민 노후 ‘탄탄 보장’

최근 스위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보장책으로 자리하고 있는 스위스의 3층 연금구조가 세계 최고 연금시스템 중의 하나로 꼽혔다.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든든한 노후보장시스템은 ‘살고 싶은 스위스’의 매력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매력적인 스위스 연금제도를 들여다보자.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중의 하나다. 실제로 스위스는 많은 유명인 및 부호들의 별장이 있고, 은퇴한 유명인들이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장소로도 선호되어 왔다. 문학가 헤르만 헤세는 독일 출신이나 스위스에서 오래 생활했으며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고 85세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영국 런던 태생의 배우 찰리 채플린,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도 은퇴 후 남은 여생을 스위스에서 마감했다. 도대체 어떤 매력 때문일까? 평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든든한 노후보장시스템은 ‘살고 싶은 스위스’의 매력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스위스 연금제도,

타당성, 지속가능성, 신뢰성 높아

최근 스위스의 3층 연금구조가 세계 최고 연금시스템 중의 하나로 꼽혔다. 바로 스위스 국민들의 제대로 된 노후보장시스템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업체 머서와 호주금융센터(ACFS)가 전 세계 주요 25개국의 연금 체계를 평가한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 조사에서 스위스가 5위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스위스는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핀란드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해 세계 최고 연금시스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스위스 연금제도는 연금제도가 얼마만큼 적절한 연금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현재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지속가능성, 개인연금제도에 중점을 두면서 전반적인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신뢰성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3층 연금제도가

스위스 연금제도 핵심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고 연금시스템으로 꼽히는 스위스 제도의 핵심은 ‘3층 연금제도’다. 3층 연금제도는 최저연금 보장을 둔 수익관련 공적연금, 나이가 들수록 기여율이 올라가는 필수적인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은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고, 개인연금은 개인선택에 의해 불입할 수 있다.

먼저 공적연금은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후와 생계에 대해 고용주와 고용인이 모두 부담하는 방식의 연방무보험이다. 2층 보장 시스템인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 기존의 생활 패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보험(고용주·고용인 모두 부담)으로 이뤄져 있다.

3층 보장시스템은 자의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제도를 말한다.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은 최종소득의 60% 수준의 연금 제공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개인보험료에 의한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개개인별 다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주로 개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소득층과 절세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한다. 참고로 스위스 법정 퇴직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4세이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기 정년퇴직을 위한 최소연령은 58세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연금지급률 매우 높아

강제가입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OECD국가로서 스위스는 1985년 강제가입 방식의 제도 도입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해 ‘3층 연금시스템’ 단계에 이르렀다.

우선 스위스 퇴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의가입도 허용되는 혼합 시스템의 형태를 띤다. 또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과 합쳐 기존 수익의 60~70%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결정된다. 특히 스위스의 퇴직연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연금지급률이 매우 높다는 강점이 있다.

또 스위스 퇴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이긴 하지만 법 규정상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 특히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 시 유족 및 자녀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스위스 연금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고소득자가 2~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면서도 연금수령액은 저소득자와 비슷하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적립해야 할 은퇴자산 비중이 높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고소득자들의 불만이 거의 없다는 점도 특이하다.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연금정책은 직접 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나와야 확정되는 형식, 즉 사회 시스템적으로 먼저 동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연금정책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생 황혼기, 독서광 되기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 무렵, 내가 걸어 온 인생길이 나만의 정다운 오솔길이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100일 33권 읽기'에 도전해보자. 독서는 내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을 찾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 줄지도 모른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야 날개를 편다”란 말이 있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철학의 한계를 지적한 말인데, 일이 끝난 뒤에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진실을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도 살아봐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헤겔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그 진실이라는 것에 가깝게 현재 삶을 살아본다면 다가올 인생의 황혼기를 좀 더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제시한다. 더 늦기 전에 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강력한 책읽기 습관 만들기에 도전해보자. 당신을 풍요롭고 행복한 황혼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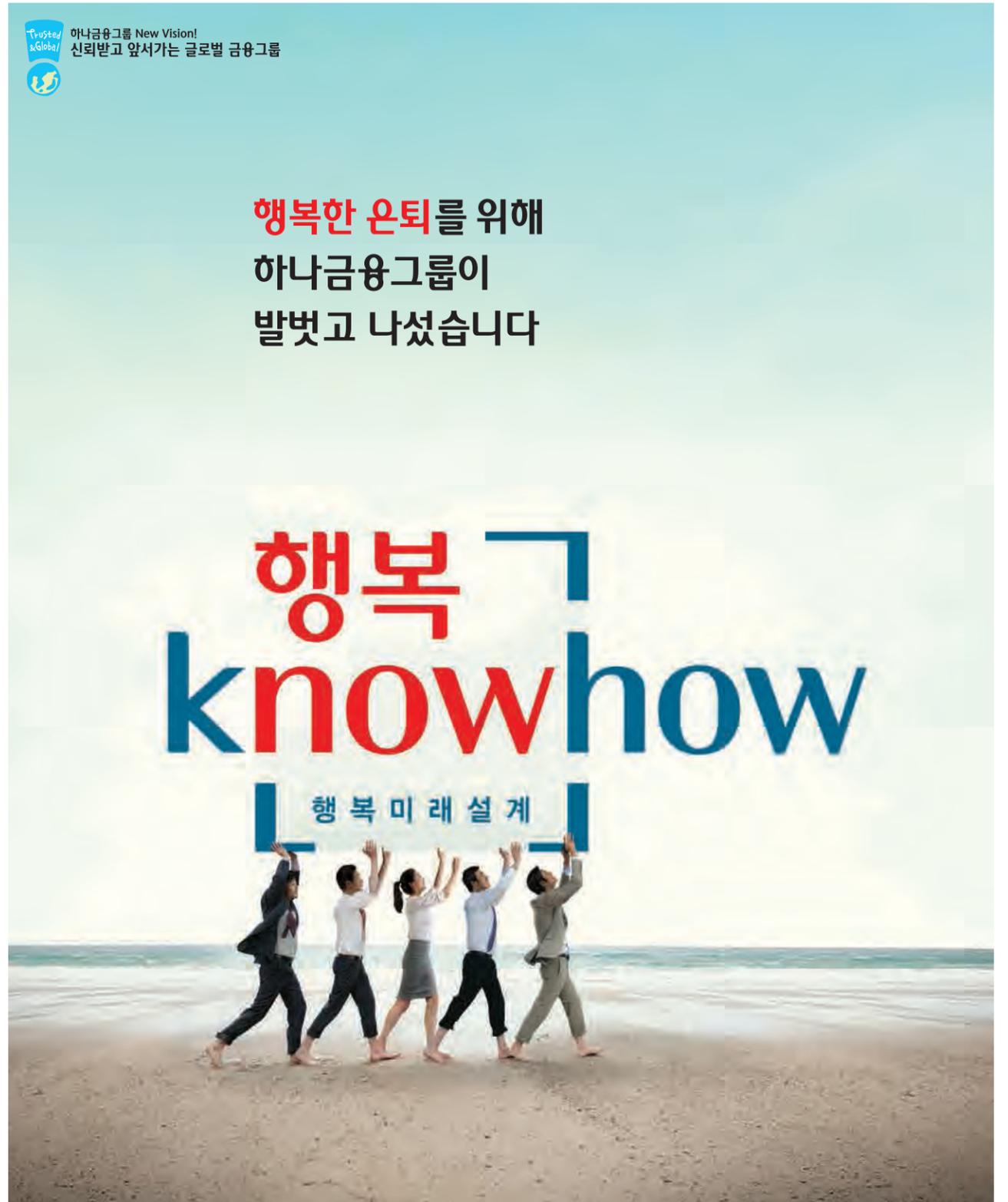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독서 습관 100일 33권 읽기 미션 6

01. 표지든 작가든 내용이든 마음에 끌리는 책을 33권 산다.
02. '오늘도 나는 책을 읽는다'는 말을 매일 아침, 잠들기 전에 소리 내어 세 번 이상 말한다.
03. 다이어리나 노트에 매일 독서 일기를 쓴다. 이때 책, 제목과 읽은 페이지도 간단히 기록한다.
04. 아침 독서 1시간, 저녁 독서 1시간, 출퇴근 시간 또는 이동 중 독서 30분을 엄수한다.
05. 근무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 5~10분씩 마음잡기용 명언집을 매일 읽는다.
06. 반드시 평균 1주일에 2권을 읽는다.

매일 독서 습관은 어떻게 만들까? 첫째, 게임하듯 읽는다. 처음 독서 습관을 잡을 때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압박을 넣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표와 기간을 정한 후 집중해서 해낼 때 성취감이 크다. 단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는 주지 말 것. 둘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독서 습관이 잡히지 않은 경우 책읽기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책을 먼저 읽고 난 후 나머지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자.

비쁜 일상에서 독서 시간은 어떻게 마련할까? 첫째, 시간을 쪼개서 책읽는 시간을 마련하자. 우선 노트에 지난달에 했던 중요한 일 중 베스트 5를 뽑아본다. 바로 생각나지 않는다면 목표없이 바쁘게만 지내왔을 확률이 높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둘째, 해야 할 일을 다이어리에 적어두자. 다음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일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 시간을 절약해 책을 읽자. 셋째, 제한시간을 두면서 책을 읽자. 항상 초 단위로 시간을 재는 습관을 들이자. 처음 독서 습관을 잡을 경우 50페이지 읽는 동안 걸린 시간을 초단위까지 기록한다. 읽기 시작한 페이지에 책 읽기 시작한 정확한 시각을 적고, 마지막으로 읽은 페이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보자. 읽을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습관화되면서 시간을 정해두고 읽는 것이 수월하게 된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책이든 다 좋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픽션, 논픽션 등 스스로가 좋아하고 흥미있는 책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어려운 책이나 멋있어 보이는 책으로 책읽기 의욕을 꺾을 필요는 없다. 독서 습관들이기의 핵심은 '재미'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도서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다산라이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SK카드, 하나카드, 하나캐피탈은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